

농민과 농약과 소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 영 진

농민의 농약에 대한 불만의 하나는 농약의 가지수가 너무 많고 농약의 품명(品名)도 까다로울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것 투성이라는 것이다. 1611년 허균(許筠)이 저술한 한정록(閑情錄)에 처음으로 나오는 고삼근(苦蔘根)이나 석회수(石灰水)등의 옛 농약 이래 3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농약의 품목수는 자그마치 338개나 된다. 십촌이 내의 아해들 이름조차 모두 기억하기 힘든 우리의 처지에 338개의 농약이름이나 용도를 소상히 안다는 것은 제갈공명이라도 어려운 일일것이다. 그러자니 자연

농약의 오용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일년 농사를 망치는 일조차 더러 있을 수 있다.

'78년의 일이다. 3월20일 비가 내리고 6월19일까지 만 3개월간 전국적으로 타는 가뭄이 계속되었다. 그 시절만 하여도 식량 특히 쌀 증산은 국가적 지상과제의 하나였다. 전국적으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물푸기 작전이 밤낮없이 계속되어 겨우 모내기를 끝낸 것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6월 하순이었다.

모내기를 끝내니 이제는 장마가 계속되었다. 병충해 특히 도열병 발생의 좋은 조건이었다. 쌀

증산 4천만석 돌파를 위해 의욕에 넘쳤던 젊은 C장관을 수행하며 전국의 병충해 방제 독려에 나섰다. 공주—논산간을 지날 무렵 몇 다랭이 논이 온통 검붉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틀림없는 도열병 증세였지만 온 논이 푸른 잎 하나 없이 전면적으로 타들어 가는데 수상쩍었으나 도열병 이외의 다른 병증으로 판단할 수도 없었다.

면사무소에 들어선 C장관은 있는대로의 노기를 띄우며 K면 G면장에게 분화구 같은 불호령을 터뜨렸다. 병충해 방제지도가 불철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난처한 것은 오들 오들 떨며 사색이 다된 면장 못지않게 수행한 나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만난 그 책임자는 어느새 면장이 된 나의 고교 동기생이었기 때문이다.

동기생의 목 떨어지는 꼴을 본다는 것은 병충해 방제 이전의 우정문제였으나 그렇다고 직책상 당연한 장관의 힐책을 면전에서 만류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고비였다.

그 순간 누군가 면창도 파악치 못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것은 농약의 오용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칠년 대한(大旱)에 빗방울 같이 반긴 말이었다. 살균제 농

약을 쓴다는 것이 「밭사그란」인지 「그라목손」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제초제를 왕창 살포하여 일년 농사를 바싹 망쳤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C장관의 노여움은 얼마간 누그러졌으나 이제는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제대로 못한 것을 책하고 있었다.

다음 스케줄을 핑계로 아직도 안면 근육이 벌렁거리는 C장관을 서둘러 모시고 나왔지만 옷이 흠뻑 젖도록 땀이 뻘뻘은 비단 무더운 기온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국을 이리저리 돌아보면 더러 이런 광경은 몇군데서 볼 수 있는게 보통이었다. 이제는 상표도 알기 쉽게 개선되었고 농민의 수준도 높아져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는 사라졌지만 많기는 하나 농약의 가지 수를 몇개로 줄여 한 품목의 농약으로 만병통치의 농약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같은 감기약 하나만도 세계적으로 수백, 수천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농약에 대한 농민의 불만은 가지수가 많고 알기 어려운 품명(品名)에만 있는게 아니라 농약의 약효가 낮다는 것에도 있다. 이런 불만은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어 출신구 국회의원에게 민원

사항으로 전달되고 말하기 좋아 하는 의원들에게 이것이 행정부를 힐책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국회가 구성된 이래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막론하고 농약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국회는 거의 없을 정도다. 농약은 약방의 감초격으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공세의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농약은 병이나 벌레등 생명이 있는 물체를 죽이는 약이니 어떤 농약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약간의 독성이 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정도가 달라 보통독성, 고독성, 맹독성등의 구분이 있는 것이며 당장은 알지 못하더라도 인체내에 일정량이 축적된후 나타나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잔류독성 등 가지가지 독성이 있다. 개중에 유기인제 같은 것은 맹독성이 있는 농약이지만 살포후 1~2주일이 지나면 분해 환원되어 약제를 살포한 농산물을 먹더라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것도 있다.

그런데 어떤 농약이든 농약이면 모두 잔류독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어 곤욕을 치르는 수가 적지않다. 잔류독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큰 사건은 77년 전남 담양의 高氏 일가족 집단 발병사건이었다. 수은제 농약이

원인이었다고 연일 주먹만한 글자로 대서특필하여 보도하였으나 도대체 하나뿐인 종자소독용 수은제는 75년이후 생산허가를 취소하여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어찌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알수가 없었다. 당시 전남대의 대 의료진의 원인규명을 위한 특별진단과 치료가 있었으나 호지부지되고 이사건후 소비자들은 건강하게 잘 자란 신선한 농산물만 보아도 농약오염을 먼저 염려하는 기풍이 조성된것 같다.

심지어 한쪽이 병들었거나 벌레가 잡아먹은 흔적이 있어야 농약을 쓰지 않은 안전식품으로 인식될 만큼 농약오염에 대한 공포는 소비자에게 보편화된 근심이 되었다.

이통에 여유가 있는 일부 소비자들은 시골에 전답을 마련해 두고 특정 품종을 재배하되 수량이야 어떻든 농약을 치지않은 농산물을 가져다 먹는 과민 부류가 일부 생겨나고 있고 생산자들도 일부 농약이나 제초제 그리고 심지어 화학비료마저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유기농업연구회나 정농회(正農會)등의 학습단체가 여러해 전에 발족되었다.

연간 농약의 사용량은 성분량으로 1만8천톤, 돈으로 환산해서 2,000억원이 넘는다. 농가호

당 평균으로 10만원이 좀 넘는 수준이며, 여기에 비료대 호당 평균 10만원을 합하면 화학적 농용자재대금은 근 40만원에 이른다.

어느 생산자인들 이만한 생산비를 들이고 싶어 쓸 것이며, 냄새만 맡아도 현기증이 나는 농약을 살포하고 싶어서 살포할 것인가? 쓰지않고는 수량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며 쓰는 것이 도리어 경제적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농약을 쓰지 않을 경우 16%의

감산(쌀)은 알려진 사실이다.

농약을 쓰더라도 출하전 일정기간내의 금지기간만 지킨다면 소비자에게 별문제가 없다.

제조회사도 한번 친 농약이 계속 식물체에 남아 인체에 영향을 준다면 애당초 그 농약의 개발과 제조를 중단 하였을 것이니 소비자 들이여! 그래도 의심이 나거든 부터 2~3번 씻어서 먹기를 권한다. 화학적 농용자재의 사용 없이 인류의 식량을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올해 公休日 66일

정묘년(丁卯年)인 올해에는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포함, 쉬는 날이 모두 66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묘년 토끼의 해인 올해는 일요일 52일과 법정공휴일 17일등 모두 69일의 공휴일이 있으나 법정공휴일중 삼일절과 식목일이 각각 일요일과 겹치고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같은 날이어서 실제 공휴일은 66일이다.

연휴로는 신정연휴(1월 1~3일), 추석연휴(10월7~8일) 이외에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등이 토요일이어서 연휴가 되며, 특히 10월에는 1일(국군의날·목요일)부터 11일(일요일)까지 사이에 3일(개천절·토요일), 7~8일(추석·수~목요일), 9일(한글날)등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정겹다리식으로 연이어 있어 11일중 4일을 제외한 7일이 휴일이다. 이밖에 천문현상은 올해에는 개기일식(3월 29~30일)과 금환일식(9월 23일)이 각각 한차례씩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금환일식만 관측이 가능하며 개기일식은 남미아프리카 등지에서만 관측할 수 있다.